

자율화 개방화시대의 정유산업 경쟁력



李會晟
〈에너지경제 연구원장〉

약 2년전 석유협회는 정유업계 및 관련인사들을 대상으로 90년대의 한국석유산업의 과제, 문제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설문 결과는 비록 2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90년대의 과제로써 당시 제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화, 자율화에 대응한 능동적 자세의 완비
- 저가 안정공급의 지속적 수행
- 소비자 서비스의 제고
- 민간주도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건전한 경쟁풍토 조성
- 환경투자 확대
- 수직결합체제 구축으로 국제화에 대비
- 사업다각화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 시장개방, 신규참입 허용에 대비하여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 확보 한편 한국석유산업의 문제점으로 설문을 통해 제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허용이익률이 너무 낮음에 따른 성장제약
-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
- 지나치게 견고한 과점적 시장구조
- 공정한 경쟁체제의 미확립

우리가 이 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석유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또 발전의 저해 요인에 대해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동안 제시된 여러가지의 정책도구와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일일것이다.

개방과 자율화의 경쟁적 환경에서 단순정제시설 위주의 석유산업은 한계산업으로의 전략이 불가피하며 궁극에는 도태의 위협을 피할 수 없다. 한국석유산업의 최대의 과제는 「정유공장=석유산업」의 도식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업스트림과 제품유통을 겸비한 명실상부한 석유산업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유산업 구조와 운영행태는 비록 여러가지 미흡한 점은 많으나 이제까지의 한국의 석유시장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소규모의 시장수요, 중질유 위주의 판매구조, 고유황유 소비기능, 과점적 시장구조, 가격통제, 이윤통제 등의 요소는 단순 정제시설 석유업의 존재를 가능케 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정

유산업 미래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요의 폭증과 구조변화, 특히 경질유 저유황유 수요의 증가, 개방과 경쟁화의 큰 조류, 정부 규제 합리화의 추구등은 새로운 모습의 정유산업 등장을 예고하는 것들이다.

한국정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90년대의 과제와 문제점이 분명히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적 변화가 보이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경쟁제한적 규제를 이용하고 그 보호적 효과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업계와 이러한 규제를 계속 집행하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업계는 자율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허용이익율의 인상을 요구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정부는 자율화와 이윤정산을 병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중질유분해투자, 탈황투자, 유전개발투자, 유통부문 합리화투자 등 석유산업의 투자소요는 산적해 있으나 경직적인 가격규제와 이윤규제의 영향으로 내부자금의 축적이 미흡해 투자수행능력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 있고 견실한 석유산업의 존재는 국가경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석유산업을 이렇게 허약체질로 방치해온 결과에 대해 업계와 정부는 냉정한 자체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규제의 비슷한 여건에서 성장해온 전력산업과 정유산업의 운영실적 비교는 향후 정유산업 규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전은 독점업체로서 가격규제를 받고 있으나 최근 전력소비의 증가로 자기 자본 이익률은 10%를 상회했으며 이같은 이윤은 앞으로 수행할 막대한 분량의 전원개발투자에 비추어 볼때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다. 오히려 투자비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유업은 독점업도 아니고 정부투자기관도 아니면서 전력산업보다 더 강력한 경직된 가격규제와 이윤규제를 동시에 받아온 것이다. 규제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게 마련인데 과연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갔는지 분명치 않다. 예를들면, 부정휘발유 유통사태가 소비자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진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상표표시제가 확고히 실시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한 제품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의구심은 계속되리라고 예상된다. 낮은 석유가격으로 소비자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지극히 단기적인 현상이다. 휘발유의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또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한 휘발유 소비의 폭증은 정유업의 투자비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환경오염을 악화시키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에게 앞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한국의 정유산업은 업스트림 확보의 가능성도 요원한 상황에서 국내의 유통기반마저 취약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표표시제를 위시한 계열화의 기본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여건에서 주유소 설립 요건의 완화는 주유소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에는 유통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소비자를 위한 정유회사 간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일반 제조업의 예를 볼때 가전기기, 자동차등 소비자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이들 생산업체는 자사제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전국적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유통망을 확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유업체가 계열 유통망을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며 유통주체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지 못한것이 문제인 것이다. 계열 유통사와 비계열 유통사의 구분이 분명해야 할 것이며 이 기본틀 안에서 유통부문 진입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업스트림의 확보는 정유산업의 과제이자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업스트림이 있으므로 해서 석유업은 호황과 불황을 다운스트림과의 균형을 통해서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게되며 그 실익은 국가로 귀속이 된다. 국가는 경제전체로 원유자금도를 체고시킬 수 있으므로 공급위기 대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가격안정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정부의 자금도 목표 20%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전개발 투자재원이 부족한 것이다.

정유회사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재원으로 활용되던 석유사업기금도 유가상승에 따라 자금조성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 자금도 목표에 접근하려면 향후 10년동안 70억~1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한데, 예상 투자액은 10억달러 정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년동안 원유 수입 제품수입에 배럴당 2달러 정도의 탐사개발기금을 부과하여 투자재원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내유가가 상승하겠으나 석유소비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개발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

는 긍정적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도 안될 것이다.

정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는 가격통제와 이윤통제의 해제이다. 아울러 제품수출입 규제조치, 정유업 진입제한조치 등도 해제되어야 한다. 경쟁화, 자유화된 여건에서 정유회사는 생존을 위한 혁신을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업스트림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정유산업은 국제화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현재의 규제가 계속될수록 한국의 정유산업은 점점 더 고립될 수 밖에 없으며 개방의 파고가 어느날 갑자기 밀어닥칠 때 존립자체에 위협이 가해질 것이다.

정부는 일찌기 1982년에 시장기능에 의한 유가결정

제도를 검토했었으며, 당시 열한가지의 문제점을 적시한 후 시장유가는 수급안정을 저해하고, 자율경제체제 적응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휘발유, 등유가격이 제한적이나마 자율화 되었다. 정부는 시장기능 확대에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5년전 석유협회 세미나에서 정부 당국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바 있다. 『업계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문제의 자주적 해결능력에 자신을 가지고 시장경쟁에 임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관여에 의존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 견해는 지금도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

분수없는 소비생활 국민경제 좀먹는다

◇ 한국통신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번호 ◇

서비스종류	이용번호	서비스내용	제공지역
농수산물가격	700-1122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꽃등 종합가격동향	74개 시단위 지역
교통정보	700-1133	열차출발시각, 요금등	서울, 부산, 대구
문화·레저스포츠	700-1144	영화, 음악발표회, 연주회, 연극, 무용 전시회 안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인천
자연의 소리	700-1155	새소리, 곤충소리등 자연의 소리	74개 시단위 지역
도서출판정보	700-1177	금주의 베스트 셀러 신간안내	"
바이오 리듬	700-3000	바이오리듬안내, 양·음력환산	"
증권정보안내	700-3500	종목시세, 종합주가지수, 산업별지수, 유무 상승자, 시황안내, 신주공모안내등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인천, 원주, 청주
인기가수신곡 소개	700-5000	최신 신곡소개	74개 시단위 지역
프로야구 경기안내	700-6000	당일의 경기일정과 전일 전적	"
다이얼 2000	700-2000	각종 시험합격자발표, 아파트분양 당첨안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여객선입출항 안내	700-1134	여객선 운항안내	부산
광주생활정보 안내	700-1111	교통·취업·상품 부동산 정보등	광주